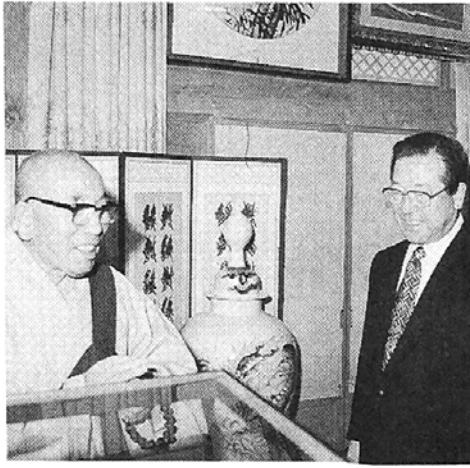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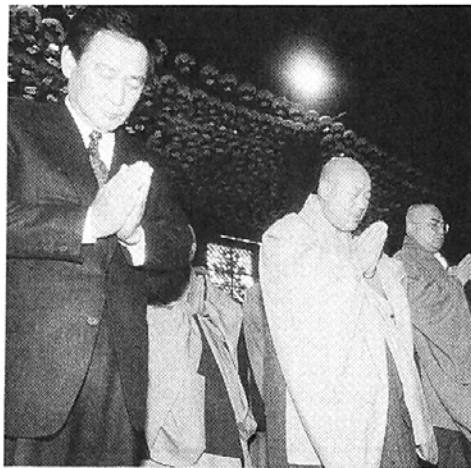
총선 임박... 정치권 '佛心 잡기' 행보 비배졌다



JP 월하종정 예방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은 지난 3일 김중철 차민련총재의 예방을 받았다. 4·11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정치인의 방문을 접한 월하스님은 옛선사들의 가르침을 들려주며 불교교리를 설명했다. 이날 김중철은 법당을 참배하고 헌화했다.



DJ 월주스님과 환담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3일 김대중 국회의총재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불교의 중도사상에 입각해 정치, 사회, 통일부분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특히 통일문제에 여야 지도자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철은 최근 정치권의 종교편향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운환대표 신년하례에 신한국당 김운환총재는 지난날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통행된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김중철은 법회에 앞서 송월주 조계종, 최혜조 태고종, 전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등 종단별 스님들과 환담을 나눴다.

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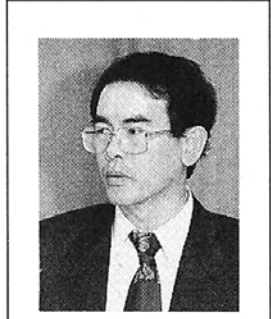
"떡을 달라고 하실 겁니까"

김대중씨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찾아 뵈었다. 김중철씨는 월하 종정 스님을 뵈었다. 가족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국방부 구내 중앙교회 예배참석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불교계의 갈등 관계가 심상치 않은 요즘, 두 야당 지도자의 행보는 우리의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 또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어떤 야권이건 정치인들의 불교계를 향한 손짓·발짓이 줄을 이을 것을 예상할 때, 이 두 거물급들이 그러한 정치계의 불교계 끌어안기에 포문을 연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또 얼마 동안 줄을 이을 정치인들의 불교계를 향한 추파를 생각하면 왠지 쓸쓸한 생각이 들고, 또 지레 불교계를 위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아! 정치인들이 불교계를 상당한 비중으로 여기는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보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러한 정치인들이 참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불교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를 참으로 알고 고기 보다는, 우선은 앞으로 있을 선거를 위해 손쉽게 불교계를 이용해 보자는 알뜰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듯 해서일 것이다. 또한 불교계가 그동안 그러한 정치인들의 천박한 추파에 넘어져 쉽게 마음도 몸도 던져 주고는, 나중에 내 고개로 내 발등을 찍었다는 아픈 후회를 너무도 많이 겪어왔기 때문이다.

정치 이끄는 의연한 불교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바로 나에게서 비롯되듯이,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는 바로 불교계의 업보이기도 하다.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한 큰 전장 속에 정치를 이끌어 갈 만한 현실적인 가르침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집안 일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여 얼치락 뒤치락... 그 와중에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라도 집안 싸움에서 이기려는 일부 불교인들의 행태로 인해 정치인들이 불교계를 눈앞으로 보게끔 만들어 왔다. 이러한 모습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불교계는 계속 정치인들의 '떡'에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성 태 용
(건국대 철학과교수)

다행한 일은 우리 불교계가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뛰어넘을 만한 성숙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숙한 의식은 현대적인 포교와 사회활동의 방법,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함께 가져

온 서양의 종교와는 달리 이른 역사를 통해 스스로 체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좀 뒤늦었지만 든든한 뿌리를 지닌 힘으로 앞날의 역사를 헤쳐갈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그러한 불교계의 성숙한 의식의 일단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이제 불교계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점들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대는 민족의 문화 전통에 대해 얼마나 이해합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각 종교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 한국의 현실을 좀더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꿀만한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현실 정치에 구현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불교계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앞서서 정치인들을 이끌어 가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정치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의연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불교의 위상이 높아질때 정치권에 대한 불교계의 요구도 말없는 가운데 조용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발등 찍은 아픈 기억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민족 문화의 유구한 뿌리를 지니고, 우리 민족의 심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불교적 정신을 현실의 정치속에 올바르게 다시 세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불교계를 보고, 불교계가 바로 서는 일은 바로 민족과 국가의,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올바른 관점을 지녀야 한다. 그렇게 볼 때 비로소 불교계에 무슨 떡을 달라고 하는 알뜰한 술수가 아닌, 진정으로 불교계에 필요한 일을 찾아내어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된 정치 지도자라면 불교계에서 어떤 떡을 달라고 할때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교를 위해서도 그건 안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현실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정치인이 아직까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우

해인총림 대정부관련 최초 산중회의 의미

대통령의 군교회 예배과정에서 발생한 종교생활 침해 및 군 최고봉수권자의 종교편향에 대한 당시의 책임있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인총림에서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결의, 급기야 김영삼대통령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산중에 까지 확산되고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지관)의 선원 율원 강원을 비롯한 산내암자 대표 30여명은 지난 2일 해인사 청화당에서 산중회의를 갖고 '대통령의 종교

이 어떻게 이룰수'라며 격분했으나 결계기간임을 감안해 단체행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였다. 그러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교계의 요구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다이 상 교권이 흔들리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해인사에서 결계중 첫 대정부 관련 산중회의가 열린 것이다. 특히 금년은 불교자주화를 최초로 선언한 '해인사 9·7 승려대회' 10주년을 안겨가려는 다음달 부터 총림을

3월실시 고교종합평가 '교계 비상'

교육부 신교육과정에 따른 종합생활기록부가 96학년도 1학년도 2월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교계 차원의 대책마련이 늦어져 집계된 중·고교 불교학생회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올해 시행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학생 종합생활기록부제도를 실시하며 기록인정을 문제부에 등록된 단체나 법인체에 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생활기록부란 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과외활동 장려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련, 봉사, 단체활동, 특별활동 등 대내외활동이 기록되어 대입평가에 포함되는 제도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 종교편향 안된다"

선원·율원·강원·산내암자 대표 '공개사과 촉구'

적 이기주의와 도덕불감증을 우려한다'며 (가칭)해인총림 교권수호위원회를 결성, 김대통령의 공개사과를 강력 촉구했다. 동안거 결계기간중에 수행자들이 산중회의를 열어 교권 수호를 외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이번 산중회의는 더 이상 대통령의 종교편향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교계의 정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전국의 선방과 강원에서 결계중인 스님들은 김대통령의 국방부 중앙교회 예배가 언론에 보도되자 '대통령

자적고사실사등의 정체를 펼쳐 대통령이 특정종교를 우대, 종교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인총림은 따라서 편향된 종교정책으로 인한 종교간의 공존과 화합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대통령은 타종교의 교권유리에 대해 국민앞에 공개사과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보장, 준수 △지역감정과 종교를 정치활동의 수단활용 금지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전국조직 불교학생회 결성 시급

사찰 봉사활동 점수인정 안돼 불자학생 불이익

이다. 이와함께 97년부터 대학별 교사가 폐지돼 각 대학에서 대학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자율로 선발할 경우 내신성적으로도 반영되는 중요한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교학생회학생들은 여름수련회와 사찰주변 환경보호활동 초파일봉사활동 등이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는 똑같은 활동을 하고도 기록이 인정되는 기독교 성경구락부나 YMCA 천주교학생회 천도교 흥사단 등 타종교 학생회와 구별된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불교보다는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등 타종교계와 학점이 인정되는 환경 탐험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등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명서

(대통령의 종교적 이기주의와 도덕불감증을 우려하며)

우리나라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다종교 사회,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종교가 중요하다면 남의 종교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21일 대통령의 국방부 종교센터 중앙교회에서의 예배는 심각한 종교간의 갈등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종교전쟁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개인 신앙생활을 탐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타인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군 심장부에서의 이번 예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우리 정치의 실상과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더욱이 군 중앙교회예배에 기독교인 장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타 종교인을 경계군 무자로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행위는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위하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대통령의 정치적 이상과 윤리, 도덕, 종교적 신념에 대하여 심각한 염려를 느끼게 하였다. 지난 대선 당시 그는 불교도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사찰을 돌며 자신의 발언(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을 극구 변명하였다. 그러나 어쩐지! 김영삼 대통령 당선이후 육군 제 17사단 국법당 폐쇄사건과 종교방송 설립허가 차별정책, 한국통신 관련 공권력 투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권유린이 발생되었고 지난해 4월, 부활절이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검정고시 일자를 부처님 오신날 이틀전으로 변경하면서도 부처님 오신날에는 국가자격고시를 시행하는 등으로 절정에 달한 정, 종교착의 양상을 보였다. 이는 대통령이 특정종교를 우대, 종교이기주의를 조장, 이에 편승하여 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이해되며, 이는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유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편향된 종교정책으로 인하여 종교간의 공존과 화합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음

- 대통령은 국방부 중앙교회 예배시 타종교인의 교권유리에 대하여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라.
-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준수하라.
- 지역감정과 종교를 정치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
- 대통령은 종교편향 정책을 중단하고 종교간의 공존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라.
- 이와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는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불기 2540년 2월 5일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해인총림 교권수호위원회 위원장

해인사소림선원 / 해인율원 / 해인사승가대학 / 산내각암자 / 본말사주지
해인사신도회 / 해인보리수 불교청년회 / 해인사중무소

이준엽 기자

김원우 기자